

철도시설공단, 민간제안 개발 사업 활성화 전문자격 취득 과정도 개설



김상균 한국철도협회장

철도 유휴부지 민간제안 개발사업 활성화한다

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. 철도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, 김천구미역 등 개발 가능 사업 대상지 총 13만㎡를 공개했다. 이번에 공개된 대상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최장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. 오송역과 김천구

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각각 2만명과 5천명으로 역사 이용객 수요가 풍부해 민간사업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.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채택되면 사업주관자 공모 때 해당 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3%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된다. 철도공단은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발 가능 대상지를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다.

공단은 2022년까지 폐선·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 활용, 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3만5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, 민자역사 점용료 등 3천800억원의 자산개발 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

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“철도 유휴부지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해 철도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철도기술사 등 3개 분야 전문자격 취득과정 개설

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전문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해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 나선다. 공단은 지난달 내외부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철도기술사 취득과정을 개설했으며 이달에는 전기철도기술사, 건설안전 기술사 등 2개 분야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. 내년부터는 매년 정원의 10~20%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게 해 2024년 말까지 분야별 기술사 취득 인원을 정원의 10% 이상(200명)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. 김상균 이사장은 “핵심 기술인력 양성으로 철도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해 더 안전한 철도를 건설하고, 이를 바탕으로 세계 철도시장 진출에도 앞장설 것”이라고 말했다. ▼

